‘고도 익산’ 역사적 가치 규명

망성면 무형리 인근지역서 원형상태 마제석검 발견 시, 보관관리처 지정 요청

망성면 무형리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마제석검’.

익산지역에서 고도(古都)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학술·문화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를 비롯한 석기시대 유물과 원삼국시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다수 발견돼, 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에서 충남 논산시 연무IC까지 연결되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 1135점이 출토됐다.

익산시는 지난 2012년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발맞춰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와 함께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중 망성면 무형리 인근 지역에서는 원형상태로 보존된 마제석검 6점이 발견됐다.

이 마제석검은 청동기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석기시대에서의 익산의 지리적 중요성을 가늠케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마제석검 출토는 익산지역이 평양과 경주 등과 함께 청동기시대의 중심지라는 학계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그 가치 평가가 남다르다.

아울러 익산지역이 고조선 준왕이 위만의 세력을 피해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마한이라고 칭했다는 설이 있는 만큼 마제석검의 발굴은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잇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마제석검, 석창 등 무기류는 물론 청동수저, 백자 등 생활용품류까지 출토되고 있어 당시 시대 상황을 연구하는 자료들로의 가치가 높다.

익산시는 출토된 유물에 대해 현황보고와 소유자 공고를 거쳐 문화재청에 보관관리처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 유물이 서동공원 마한관에 보관·전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청동기시대 유물이 익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굴되는 것은 청동기시대의 중심지라를 학계의 논리를 뒷받침 하는 근거”라며 “출토된 유물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전북도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아이들이 공연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순창군은 지난 11일 지역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 부모님을 초청해 중간 발표회를 가졌다.

순창군,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 부모 초청 중간발표회 열어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국악오케스트라 선율이 순창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뽑냈다.

순창군은 지난 11일 지역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 부모님을 초청해 중간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단이 창단 후 6개월간 갈고 닦아온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순창군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는 청소년에게 전통예술교육 및 국악연주를 통해 문화동질성을 추구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0여명의 지역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창단 이후 도립국악원 강사들의 지도하에 매주 2회 거문고, 가야금 등 10개 분야에 걸쳐 파트별 개인 레슨과 합주를 병행 연습해 왔다.

이날 행사는 오케스트라 단원과 부모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케스트라 합주 공연을 듣고 강사, 단원, 부모님과 파트별로 식사를 하며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 이모씨는 “아이들만 맡겨 놓고 궁금했었는데 오늘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 서툴지만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는 순창군과 전북도립국악원,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이 주최하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노동조합의 후원으로 만들어 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다양한 문화생활로 일상을 더 풍요롭게

고창 ‘문화가 있는 날’ 성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 모두가 문화를 쉽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참여의 붐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늘도록 매달 마지막 주에 진행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이 연주와 관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해, 무대 위에서 생생한 감동을 가까이서 만나는 다양한 라인업을 꾸려 매회 70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또한 성악을 전공한 젊은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허니보이스’ 전문합창단 공연 등 연주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앉아 온 몸으로 음악을 감상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새로운 경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고창판소리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 일환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 고유의 판소리를 직접 듣고 따라 배울 수 있는 ‘맞춤형 판소리 체험공연’을 무료로 시연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맞춤형 판소리 체험공연이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으며, 관내 경찰서와 전라북도교육청 교장단 연수교육과정에 우리 소리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다는 반응이다.

‘맞춤형 판소리 체험공연’과 함께한 관람객은 700여명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당 학생부터 고창을 방문한 관광객까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150여명이 함께 하면서 공연도 보고 지역 명소도 들러 관광객 유치의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

한편 고창군립도서관 ‘시·낭송·그림을 만나다’, 고창성호도서관 ‘우리 선생님과 인문학 맛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고창의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문화생활은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생필품처럼 느낄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며, “고창군민 누구나 문화를 통해 재충전하고 문화가 있는 생활 속에서 좀 더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고창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아듀 2017 송년음악회’

군산시립교향악단(단장 한준수 부시장)은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신년을 맞이하는 음악회로 제127회 정기연주회 ‘ADIEU 2017,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군산시민의 사랑과 응원으로 성장한 시립교향악단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무대로써, 1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특유의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클래식 음악과 재즈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명곡인 거쉰(George, Gershwin)의 ‘랩소디 인 블루’를 연주할 예정이다.

또한 2부에서는 미국이 낳은 세기의 마에스트로 레나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의 ‘캔디드 서곡’, 전북발레시어터와 협연으로 진행될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시립교향악단이 다채롭게 선보이는 연주회로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 송년음악회와 함께 한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하며 공연티켓은 전석 무료로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고, 현장티켓은 공연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배부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경력단절예방 직장문화개선 워크숍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가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직장문화개선 워크숍을 지난 11일 장수 방화동자연휴양림과 나봄리조트에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장수지역자활센터, (유)유담, 취업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과 근로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관계자는 “직장문화개선에 대한 교육 수강 및 팀별 사례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를 형성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